

2030

‘인천시 2030 미래 중장기 비전’ 선언

## 10년 후, 확실한 미래

소통으로 ‘살리고’ 협력으로 ‘잇는’ 인천의 미래.  
300만 인천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시민을 위한 행복 정책은  
이 순간에도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10

OCTOBER 2019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10

2년 연속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지

굿모닝인천



COVER STORY  
필름 영상기 너머로 추억을 그리는,  
조점용 전 미래극장 영상 기사  
표지 사진 류창현



## 바람 불면, 아버지는 바다를 건넜다

개항의 역사를 찾아 길을 나선다. 인천항이 아니다.  
이 땅의 진정한 개항은 삼국시대 청량산 끝자락 능허대凌虛臺에서 이미 시작됐다.  
백제는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 고구려를 피해 바닷길을 건너야만 했다.  
능허대의 나루터 한나루大津에서 닻을 올린 배는,  
덕적 바다 건너 중국 산둥의 동래주東萊州까지 머나먼 항해를 떠났다.

사신들은 능허대 언덕에서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다,  
때가 되면 배에 올라 부모와 처자식을 등진 채 난바다로 떠나갔다.  
남은 가족은 문학산 사모지고개三呼岬에서  
멀어져 가는 아버지를 외쳐 부르며 아픔을 삼켜야만 했다.

어쩌면 다시 오지 못할 길. 오늘 능허대 언덕이 있던 자리에,  
남몰래 흘리던 아버지의 눈물 씻어내던, 그 바람이 분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손에 든 옛 사진은 1930년대 능허대 일대로 왼쪽으로 언덕이, 오른쪽에는 능허대가, 그 뒤편으로 아암도가 보인다.  
오늘 나루터 한나루 부근에는 아파트 숲이 채워지고 아암도 일대에는 송도국제도시가 들어서, 옛 흔적을 찾기 힘들다.

## CONTENTS



**04 인천 미소**  
인천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 外

**05 미디어&스토리**  
온라인 콘텐츠 환경오염을 막자

**06 인천의 맛**  
② 남동배

**12 사람과 공간**  
⑩ 추억극장 미림

**16 백스테이지**  
무대 뒤의 사람들

**20 교동 난정리**  
해바라기 마을정원

**24 시민 소통 공간**  
인천愛(애)들

**28 살고 싶은 도시**  
⑩ 독일 뮌헨

**32 그레이트 인천**  
인천대교 10년

**36 내가 사랑하는 인천**  
조각가 고정수

**38 시민 시장**  
아름다운동행인천 자원봉사자 강병인

**40 문화 캘린더**  
소프라노 윤경희 독창회 外

**42 인천아트플랫폼 10주년**  
오버 드라이브

**44 이미지 뉴스**  
인천 2030 미래 이음

**46 시정 뉴스**  
인천 중장기 발전 ‘인천 2030 미래 이음’  
본격 시동 外

**50 의회 뉴스**  
시의회, 강화군 돼지열병 방역현장 방문 外

**52 드로잉 인천**  
짜장면박물관 - 화가 김재열

**54 인포 박스**  
월미바다열차 타고 인천을 누벼요 外

**58 인천의 아침**  
시월의 어느 멋진 ‘인천 시민의 날’에

**59 인천사진관**  
홍혜림 독자님 가족



# 인천미소

인천과 시민을 잇는 ‘미’디어  
시민의 청원에 답하는 ‘소’통e가득  
‘인천 미소’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항상 미소 짓습니다.

인천시 종합 매거진  
<굿모닝인천>이 모바일에 쏙!

인터넷 주소창에  
www.mgoodmorningincheon.co.kr  
검색창에는 <굿모닝인천 모바일>을 입력하세요.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 인천시 S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incheon.gov  
블로그 blog.incheon.kr  
유튜브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 twitter.com/incheon\_gov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incheoncity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인천시 미디어’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ncheon\_gov  
웨이보 www.weibo.com/incheon

##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 인천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

1960년대 인천역의 모습이 지금과 너무도 닮아 있어 놀라웠습니다. 대한민국 120년 철도 역사가 인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했고요. 제2경인선 건설 사업이 곧 추진된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인천이 성장하는 데 있어 옛것이 지닌 가치가 잘 보존됐으면 합니다. 인천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 홍선영 남동구 염전로

### 도시의 변화상이 담긴 이야기보따리

인천의 변화무쌍한 성장사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시민입니다. 도시의 발전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생산됩니다. 작은 풍경 하나에서부터 역사, 문화, 사람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가치가 담긴 소중한 콘텐츠가 <굿모닝인천>을 통해 오랫동안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각 분야별 정책도 하나의 이야기처럼 편안하게 풀어내 주세요.

————— 조형기 계양구 효서로

### 조화로운 도시 인천이 자랑스럽습니다

토박이로서 느끼는 인천의 매력은 ‘공존’입니다. 오래된 시간만큼이나 깊고 짙은 원도심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신도시의 조화로운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재생과 개발의 공존을 <굿모닝인천>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도시와 사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유은정 남동구 선수촌로

###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네 이야기

가까운 인천의 여행지를 가족들과 종종 찾습니다. 그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굿모닝 인천>입니다. 최근에는 ‘인천 사진관’ 코너를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지닌 가족의 모습이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웃음 짓게 합니다. 가족과 함께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새삼 느낍니다.

————— 조건희 경기도 부천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온라인 콘텐츠 환경오염을 막자

글 장훈 시 소통기획담당관

SNS를 즐겨 한다. 살아가는 일상이나 관심 있는 내용을 포스팅하는 일이 제법 재미가 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한다. 가끔 SNS에서 맺은 인연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친구가 되는 이들도 있다.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첫 대면은 왠지 어색할 때가 많다. 그러나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이내 친근함을 되찾게 된다. SNS에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그 매개가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겠지만, SNS에서도 관심을 끌고 호응이 좋은 포스팅이 있게 마련이다. 단계별로 따져보면 가장 저조할 때가 ‘나만 관심 있는 콘텐츠’를 올렸을 경우다. 물론 SNS는 내 영역이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올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감되지 않는 자신만의 이야기로 채우거나, 이익을 위한 광고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폭 넓은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올리는 포스팅도 마찬가지다. 대화는 인격과 개성을 지닌 유저들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이다. 공공 기관의 SNS가 큰 호응을 받지 못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바란다.

SNS 친구들과 팔로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공통의 관심 콘텐츠’를 올리면 호응도는 높아진다. 상대방에게 재미있고, 도움이 되고,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면 ‘좋아요’ 엄지손가락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댓글도 많아지고 소통은 향상된다. 재미를 위해서 상식을 넘어서는 무리한 콘텐츠를 올릴 때가 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겠지만 결국 역효과만을 초래한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혐오 콘텐츠나 가짜 뉴스는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요즘이다.

SNS는 개인이 하는 1인 언론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NS를 운영하는 개인은 콘텐츠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된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대한 책임 문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 뉴스나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막말이나 혐오 발언, 그리고 불확실한 뉴스를 게재하고 공유하는 일은 SNS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듯이, 우리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질서도 네티즌 스스로 지켜야 한다. 깨어 있는 시민 의식은 온라인에서도 필요하다.





노스텔지어의 맛

# 남동배



촬영 협조: 만성농장

인천의 맛



인천만의 ‘그 맛’이 있다. 지역 음식에는 고유한 지리적 환경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그릇 똑딱 비우고 끝낼 일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인천의 산과 숲에서 자라고, 바다와 갯벌에서 펄떡이고 있을 먹거리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맛을 기록한다. 그 두 번째는 바람과 햇살이 키우고 귀한 땀으로 가꾼 노스텔지어의 맛, ‘남동배’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단물 툭툭 남동배,  
가을이 흠뻑 배었네

• 자연은 철마다 숨 고르기를 할 뿐 호흡을 멈추는 법이 없다. 무더위가 슬그머니 물러선 자리에 한줄기 바람이 비집고 들어온다. 생명이 갈무리하는 계절이다. 한결 더 그늘진 햇살과 바람에 들뜬 곡식과 과일이 탐스럽게 무르익는다.

남동구청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드리워져 있다. 회색빛 도심에 펼쳐진 푸른 숲이 눈과 마음에 생기를 돌게 한다. 산은 구월동 끄트머리에서 시작해 수산동, 도림동까지 마을을 감싸며 길게 이어진다. 이들 동네는 밤낮의 온도 차가 크고 바닷바람이 불어와 맛 좋은 배가 자라기에 적당하다. 도림동에서 40여 년간 배를 키워 온 만성농장의 김길환(76) 대표는 ‘남동배’를 “나주 사람도 인정하는 우리 배”라고 치켜세운다. 이 일대엔 40, 50여 년 된 배 농가 30여 곳이 오붓이 들어앉아 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덕에 하루하루 솟아나는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햇살과 빗물은 열매를 자라게 하고 바람은 당도를 끌어올린다. 바람이 서늘하게 부는 10월이면 배의 단맛이 최고조에 이른다. 배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땀의 결정체’를 손에 든, 만성농장의 함성천 소장.(왼쪽)

남동구 개발 제한 구역은 순도 100%의 자연을 품고 있다. 배 농장 너머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보인다.



그렇게  
농부가 된다

오전 7시, 만성농장. 이른 시간이지만 수확한 배를 선별해서 보관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세 명의 일꾼이 말을 건네기 미안할 정도로 분주히 움직인다. “추석 전에 나갔어야 하는데, 올해는 명절이 일러서 많이 못 팔았어요. 이제야 자라서 거둬들이고 있네요.” 만성농장의 함성천(70) 소장이 수확한 배들을 창고 한편에 쌓아올리며 말한다. 고된 농사로 거칠어진 손이지만, 배를 다루는 손길은 섬세하고 정성스럽다. 열매를 맺기까지 땀 흘린 시간과 그 안에 담긴 애뜻한 마음이 전해진다.

그는 3년 전, 이 농장에 와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내 발은 아니지만 내 자식처럼 애지중지 배를 키웠다. ‘이만큼 예쁘게 키워놨는데… 잘 버텨내야 할 텐데….’ 지난달 초 태풍 ‘링링’이 온다는 소식에 결실을 거두지 못할까 마음 졸였다. 떨어져 나뉘구는 배를 봤을 땐 허탈에 잠겼다. “내 땀이 여기 다 스며 있잖아요.”

지금이야 능숙한 손길로 배를 키우지만, 농사꾼으로 살아간다는 건 녹록지 않은 일이다. “일을 하고 싶으면 배 농사를 지어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리 힘든지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눈뜨면 농장으로 향하는 삶이 버거워질 즈음 그의 마음을 다독인 건, 자연이었다. 봄이면 순백색 꽃눈이 훑날리고, 가을이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이 안에서 일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공기부터 달라서 속이 확 트이지요.” 이 순간에도 그는 자연의 들숨과 날숨에 호흡을 맞추며 땀 흘리고 있으리라.



수확한 배를 쌓아올리는 함 소장.  
그 손길이 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다.(위)

배를 수확하는 만성농장 사람들.  
결실의 계절이 오면,  
농장의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간다.(아래)



바람과 햇살이 키우고  
귀한 땀으로 가꾼, 노스텔지어의 맛.



자연 안에서  
행복 찾기

땀 흘린 만큼 거두며 살아가는 것.  
농부들이 바라는 소박한 행복이다.  
사진은 영일농장의 엄우봉 대표.

이맘때면 하루가 다르게 배가 자란다. 농장 울타리 안, 봉지에 싸여 줄줄이 달려 있는 배들이 한 뿔의 별이라도 더 쪼려고 목을 늘어 빼고 있다. 싱싱하게 여문 열매를 따 쓰윽 닦아 한입 베어 문다. 차르르~ 물기 어린 단맛이 입안 가득 번진다. 남동배는 물이 많아 시원하고 달디달다. 여기에 특유의 새콤한 배향 사이로 씹는 맛도 좋다. 서걱거리지도 무르지도 않은 아삭함이 딱 알맞다.

햇살, 바람 그리고 사람이 빚어낸 귀한 결실이다. 인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배 연구회와 머리를 맞대고 명품 배를 키우는 데 힘쓰고 있다. 토양의 질을 끌어올려 과실의 당도를 높이고 고운 빛깔을 입혔다. ‘답프루트’ 시범 단지를 운영해 상품성을 높이고, 수출 생산 단지로 키워 과테말라와 대만, 베트남으로 내보내는 성과도 이뤘다.

배 연구회의 일원인 엄우봉(46) 영일농장 대표는 6년 차 농부다. 서울에 있는 IT 기업에 다니다 장인어른이 운영하던 배 밭을 물려받았다. 처음 하는 농사일이 어렵고, 도시 생활과의 간극을 메우기도 쉽지 않았다. “‘열심히 일하되 욕심은 부리지 말자’는 자연의 순리를 깨우치기까지 6년이 걸렸어요.” 밤낮으로 배를 연구하고 흙을 만지다 보니 어느덧 농사에 자신이 붙었다. 재작년엔 수확량을 늘릴 생각으로 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 남동배를 구입하려면 남동농협을 이용하거나, 농장에 직접 방문 혹은 연락 후 택배로 받으면 된다.

만성농장 남동구 도림동 413-11 ☎ 032-446-4177  
영일농장 남동구 구월동 633 ☎ 010-8882-0313  
남동농협협동조합 ☎ 032-464-1864  
인천농업기술센터 ☎ 032-427-5959



달았다. 아뿔싸. 큰 배가 영양분을 빼앗아 다른 배들을 자라지 못하게 했다. 그래도 먹고살 만큼은 열매가 맺었다. 자연은 땀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번 태풍 때도 잘 버텸주었어요. 농장을 둘러싼 산이 비바람을 막아주고 미리 시설을 갖춰놓은 덕이지요. 농사는 하늘에서 정해준다면, 결국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준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출근을 준비할 때,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밭에 나갈 때면 가슴이 부듯하다. 하루하루 실하게 커가는 열매를 보노라면 ‘이 맛에 농사를 짓지’ 하는 마음에 미소가 흐른다. 땀 흘린 만큼 거두며 살아가는 것. 도시 한복판의 노스탤지어에서, 농부들이 바라는 소박한 행복이다.

### 농장 풀밭 위에 차린 ‘신의 선물’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Homeros)는 배를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했다. 배는 우리나라에서 3,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다. 삼한시대부터 배나무를 길렀고 한말에는 황실배와 청실배 등의 품종을 재배한 기록이 있다.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신고배는 일본에서 개량된 품종이다. 인천에서는 수산동과 도림동 일대에서 배가 재배된다. 그 맛을 인정받아 ‘탐프루트’ 마크를 달고, 과테말라와 대만, 베트남으로 수출하기도 했다. 배는 수분이 85~88%, 당분이 10~13%를 차지하며, 유기산, 비타민 B와 C, 섬유소 등이 들어 있다. 특히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좋다. 배를 고를 때는 둥글고 큼지막하며, 선명한 황갈색에 푸른 기가 없는 것이 좋다. 또 배 고유의 점무늬가 크고 껍질이 두껍지 않은 것이 수분이 많고 달다. 배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통조림, 잼, 배숙 등을 만들어 먹어도 좋고, 고기와 김치 요리에도 궁합이 잘 맞는다.

가을이라지만 유난히도 맑은 날,  
배 농장 풀밭 위에 ‘신의 선물’로 만든 음식을 차렸다.  
그 맛은, 열매가 자라는 동안  
스미고 스민 농부의 정성스러운 땀방울에서 시작됐다.

### 배가 들어간 해물 샐러드

배는 식감이 아삭하고 물기가 많아서 시원하게 먹으면 좋다. 해산물과 해초로 만든 냉채류와도 잘 어울린다. 산과 바다에서 난 건강한 먹거리에 싱그러운 드레싱을 곁들여, 가을 영양을 듬뿍 담은 샐러드를 완성했다.

#### 재료

대하 10마리, 미역 및 해초 모듬, 오이 1개, 배 1개

#### 드레싱 :

현미식초 4T, 매실청 4T, 레몬즙 3T(1개분) 설탕 2T,  
소금 2t, 마늘 25g, 케이퍼 2T

#### 만들기

- 1 —— 모듬 해초는 다듬어서 먹기 좋게 자른다.
- 2 —— 오이와 배는 도톰하게 채 썬다.
- 3 —— 대하는 내장을 빼고 데쳐 편으로 썬다.
- 4 —— 드레싱 재료는 고루 섞어 냉장고에 넣어둔다.
- 5 —— 모듬 해초와 오이를 접시 아래에 깔고 대하와 배를 올린 후 차가운 드레싱을 얹어 낸다.



### 시나몬 배숙

배숙은 대표적인 가을날의 전통 마실 거리다. 배 고유의 단맛에 시나몬의 알싸한 향이 어우러져 감미롭게 입맛을 사로잡는다. 궁중에서 즐겨 먹던 귀한 음료로, 찬 기운을 몰아내고 온기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촬영 협조 : 만성농장

#### 재료

배 1개, 생강 10g, 팔각 4개, 스위트 시나몬 스틱 2개,  
정향, 물 10ℓ, 꿀 6T

#### 만들기

- 1 —— 배는 껍질을 벗겨 세로로 8등분한다.
- 2 —— 정향은 껍질을 벗겨 배에 꼽는다.
- 3 —— 물에 분량의 모든 재료를 넣고 중불에서 20분 정도 끓인다.
- 4 —— 배를 너무 폭 삶거나 덜 익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

요리 진회원 디자인하는 푸드 스타일링 전문가 진회원은 현재 ‘Cook & Styling 실버 스푼’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따뜻한 냄비 하나>, <식사하셨어요? 도시락이 필요한 모든 순간> 등이 있다.





## 인생은 아름다워

공간은 곧 사람을 의미한다. 숨 쉬고 머무는 자리마다 살아온 시간과 삶을 대하는 태도, 생각이 스며든다. 이번 호에는 기억 너머에서 삶의 영역으로 들어온 소중한 공간을 찾았다. 1957년 천막극장으로 시작한 실버 영화관 ‘추억극장 미림’이다. 그 옛날 ‘할리우드 키드’들은 백발노인이 됐지만, 인생이라는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영화 ‘9월이 오면’의 한 장면.  
자금은 고인이 된  
할리우드 스타의 젊은 날에서,  
청춘의 날들이 교차된다.



### 스크린에 비친 청춘의 날들

\*

영화를 소비하기보다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느낌이다. ‘추억극장 미림’은 어르신들을 위한 인천 유일의 실버 영화관이다. 동인천역 4번 출구에서 나와 배다리 방면으로 가면, 엘리자베스 테일러, 험프리 보가트, 폴 뉴먼 등 유명 배우들이 그려진 영화 포스터가 펼쳐진다. 이 극장에선 40~50년 전에 상영했던 고전 명화들이 스크린을 가득 메운다.

미림극장은 1957년, 무성 영화를 상영하는 천막극장 ‘평화극장’으로 그 역사를 시작했다. 가까이 있던 문화, 오성, 현대 극장과 함께 동인천역 뒷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영화관이었다. 이들 극장은 흑백 영화처럼 추억 너머로 사라지고, 유일하게 미림극장만 남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그 옛날 천막으로 숨어 들어가 까치발을 들고 스크린 너머 세상을 꿈꾸던 ‘할리우드 키드’들은 백발노인이 됐다.

미림극장의 영사기도 꽤 오랫동안 멈추어 있었다. 2004년 7월 29일 상영한 ‘투가이즈’가 마지막이었다. 물밑듯이 영화를 쏟아내고 소비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밀려 극장 문을 닫은 것이다. 다행히 2013년 10월 2일, 어르신들을 위한 ‘추억극장 미림’으로 재개관했다. 55세 이상이면 찜짓돈 2,000원에, 생애 가장 빛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은 쓰지 않는 필름을  
영사기에 걸어보는,  
조점용 전 미림극장 영사 기사.





필름 영사기 따라  
흘러간 인생

\*

“기억도 안 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조점용(75) 어르신은 미림극장 깊숙이에 있는 영사실에서 평생 필름을 돌렸다. 그에게 미림극장에서 마지막으로 필름을 만지던 때를 묻자 짧은 답이 돌아왔다. 아차, 싶었다. 1972년, 한창나이에 미림극장으로 와 결혼하고 자식 셋을 낳아 키우며 30여 년을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일생을 바쳐온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극장이 문 닫고 텅 비어 있던 10여 년간, 그는 이 일대로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극장 앞을 지나면 바로인 길을, 수도국산까지 멀리 돌아서 갔다. “극장 문 닫은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싫을 수 없었어. 내 청춘 다 바치고 가족들 먹여 살린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졌으니까.” 재개관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미림극장은 내 가족이야.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만난 거지.”

이제 대부분의 극장에선 작동하기 쉬운 디지털 영사기를 쓴다. ‘추억극장 미림’도 재개관 첫날 ‘사운드 오브 뮤직’을 튼 것을 마지막으로 필름 영사기를 더 이상 돌리지 않는다. “필름을 돌릴 때는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버튼만 눌러 작동시킨다지. 편리하긴 해도 디지털은 필름이 주는 자연스러운 영상미를 따라올 수 없어.” 언젠가 만났던 ‘애관극장’의 최경술(59) 영사 기사도 같은 말을 했었다. 그는 미림극장에서 조점용 어르신으로부터 영사 기술을 배운 제자이기도 하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이다. 실수로 스크린이 까맣게 변하기라도 하면 관람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관중석에서 영사기로 ‘옛이나 바꿔 먹으라’고 했어. 허허.” 그래도 관객들은 영화가 다시 나올 때까지 20분이고, 30분이고 기다려줬다. 지나고 보니 다 아름다운 추억이다.

영사실에서 평생 필름을 돌린 시간.  
실수로 스크린이 까맣게 변하기라도 하면,  
관람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지나고 보니 다 아름다운 추억이다.



미림,  
그대로도 충분해

\*

‘추억극장 미림’의 시간은 느리게 움직인다. 나이 든 영사 기사가 먼지 자욱이 쌓인 추억의 영화를 꺼내어 어둠에 잠긴 스크린에 비춘다. 영화의 장면마다 아름답던 청춘의 날들도 함께 흐른다. 1960, 1970년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통로라곤 극장이 전부였다. 그래도 낭만이 있었다. 연인과 로맨스 영화를 보고 신포동과 동인천 일대 경양식집에서 ‘칼질’을 하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 근사한 기분에 젖어 들었다. 그 시절 극장은 서민들의 고된 하루하루를 달래고 살아갈 힘을 주던 희망의 공간이었다.

한 노신사는 좋아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 ‘추억극장 미림’을 종종 찾는다. 천막극장 시절부터 발걸음을 했다. “젊은 시절 미림극장에서 보던 영화의 장면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해요. 이 안에서 조용히 영화를 보며 그 시절로 돌아가곤 하지요. 미림극장은 내 마음의 고향이에요.” 스크린 불빛 아래, 그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추억극장 미림’은 추억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예술 영화 전용 상영관으로 국내외 독립·예술 영화들을 선보이고, 어르신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대가 함께 하는 가족 문화 공간’이 오늘 ‘추억극장 미림’의 모토다. 처음엔 그 새로운 모습을 담고 싶었다. 하지만 미림극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들 눈과 마음에 담기는 건,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그리운 그날이기에. ‘추억극장 미림’은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추억극장 미림

A. 동구 화도진로 31(송현동, 미림극장)  
T. 032-764-8880  
H. www.milimcine.com



※ 미생36플랜 | 미림극장에 생명을 36개월간 불어넣어 주세요. 문의 ☎ 032-764-6920



영사실에서 전시실로 자리를 옮긴 필름 영사기.(위)

실버 영화관에선 팝콘 대신 건빵, 양갱, 모나카가 제격.(가운데)

시간의 주름이 깊게 팬, 추억극장 미림. 허공의 전깃줄마저 나이테처럼 느껴진다.(아래)







모노드라마 '너, 돈끼호테'

## Backstage

“무대 뒤가  
궁금하세요?”

한 편의 공연이 무대에 올라 관객을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을까, 무대 뒤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무대 뒤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로움이 담겨 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르고 가장 마지막에 무대를 떠나는, 감동의 순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들….

화려한 무대가 아닌, 무대의 뒷모습을 담았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바튼에 걸린 조명은 모두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 조정된다. 공연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명의 색감, 각도, 조도 등을 세심하게 조절한다.



화려한 무대와 달리 무대 뒤는 어둡고 복잡하다. 천장 가득 자리 잡은 시설들이 모두 하나의 공연을 위해 사용된다.

낮설고 설레는 공간,  
무대 뒤

연극이나 오페라, 연주회 등 하나의 공연 작품이 관객에게 전 해지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다. 의상, 세트, 조명, 음향 기기를 담당하는 이들과 총연출을 맡은 무대 감독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오직 무대 위에 서는 배우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 조명 위치와 각도는 물론이고 조그만 효과음 하나, 작은 빛 한 줄기도 모두 무대 뒤의 스태프들이 약속된 정확한 시간에 하나하나 손으로 구현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연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17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커다란 트럭에서 소품과 기자재를 내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무대 뒤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무대 세팅에 들어간다. 무대 뒤에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천장에 커튼과 수많은 조명이 달린 바튼이 가득 매달려 있었다.

“바튼 내려주세요.” 무대 감독의 외침에 천장에서 조명이 달린 바튼이 내려온다. 신기하다. 이 많은 조명이 모두 천장에 빼곡히 숨겨져 있었다나….



사람 손 거쳐야 하는  
세심한 작업

조명을 달고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작업 같아 보이지만, 섬세하게 작업되어야 하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조명은 무대의 공간 에너지를 배우와 함께 관객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명 감독은 배우를 도와주는 서포트의 창작자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색감, 어떤 조도, 어떤 각도의 조명이 공연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거든요.” 이나구 조명 감독은 조명 색깔로도 관객의 심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심한 작업이 끝나면 공연 시 극중 장면에 따라 조명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도록 장면마다 사용할 조명 번호를 미리 입력해 놓는다. “무대 세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다양한 파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죠.” 최성국 무대 감독은 무대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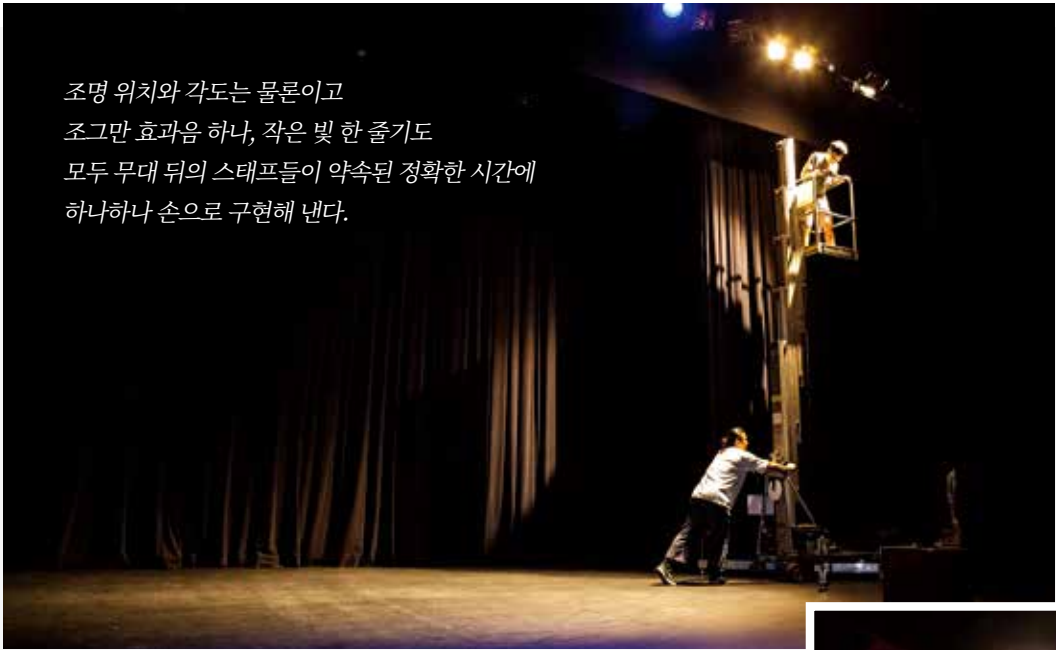
되는 순간부터 안전사고 없이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대 감독은 무대뿐 아니라 조명, 음향, 배우 등 여러 파트와의 조율과 스케줄 관리 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거든요. 공연은 기술적인 스태프들과 예술적인 스태프들이 만나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무대감독은 그 가운데서 교량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대 세팅부터 리허설, 공연까지 총괄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으로 관객들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공연 시 무대 감독의 자리는 SM데스크라고 불리는 무대 옆 작은 공간이다. 관객들 시야를 벗어나 모니터를 통해서만 공연을 볼 수 있다. 무대 감독은 이 자리에서 공연을 지켜보며 “마이크 켜주세요” “조명 꺼주세요” “멘트 내보내주세요” 등 공연에 필요한 요소들을 감독한다.

모든 관객들이 즐겁게 무대를 보는 순간에도 스태프들은 무대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하다.



# Back Stage

조명 위치와 각도는 물론이고  
조그만 효과음 하나, 작은 빛 한 줄기도  
모두 무대 뒤의 스태프들이 약속된 정확한 시간에  
하나하나 손으로 구현해 낸다.



관객을 맞기 위한  
수많은 점검

무대 위에서는 음향 감독을 비롯해 소품 담당, 분장 담당 등 많은 스태프들이 여전히 하나의 공연을 위해 쉼 없이 분주하다. 이번 공연은 배우와 풀리 아티스트 단 두 명만이 무대 위에 등장하지만 출연진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무대의 준비 과정은 늘 동일하다고. 무대 세팅이 모두 끝나면 조명, 무대 전환, 음향, 세트, 영상 등을 맞춰보는 테크니컬 리허설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공연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최종 리허설인 드레스 리허설이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탄탄한 설제 위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공연을 만들까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은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계속 진행형이다. 무대 뒤에선 여전히 장비 점검이 이뤄지고, 배우의 음향 체크가 진행된다. 텅 빈 무대 위에 하나둘 소품이 등장하고, 조명 위치를 다시 점검한다. 배우와 스태프들의 무대 점검이 끝나면 이제 관객을 맞을 준비를 한다.

INFORMATION

지난 5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의 견학 프로그램인 ‘신나는 백스테이지 투어’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관객들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연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는 ‘신나는 백스테이지 투어’는 무대, 객석, 전시실, 예술단 연습실 등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여러 시스템에 대한 해설과 시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교 단체로만 진행했던 올해 ‘신나는 백스테이지 투어’는 아쉽지만 신청이 모두 마감됐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내년에는 좀 더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 단위의 신청자도 접수할 예정이다.





사진 © 교동면사무소 류선주

“희망을 잃지 마세요.” 실의에 빠진 교동면 주민들에게 힘을 주고자 한 시민이 쓰러진 해바라기 밭에 모형 꽃을 달아놓았다.

66

## 1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노란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99

올해 교동도 난정리 마을이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마을 주민들이 손수 가꾼 10만 송이의 해바라기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사방이 탁 트인 난정리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은 입소문과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마을 주민들은 신이 났다. 소박한 축제를 개최해 마을 자랑을 한껏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태풍 ‘링링’이 먼저 찾아왔다.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다. 다시 희망을 그러모았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무더웠던 지난여름, 마을 주민들이 해바라기 밭을 조성하고 있다.(왼쪽)

태풍이 몰려오기 전, 아름다웠던 ‘난정리 해바라기 마을정원’.(오른쪽)



### 해를 닮은 아름다운 노란 물결

교동도 난정리 마을에 밭을 들여놓는 순간, 해바라기가 펼쳐는 노란 향연에 폭 빠져들게 된다. 태양을 향한 마음을, 태양을 닮은 마음으로 담아낸 해바라기가 아득하게 핀 풍경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하다. 화려하게 몸을 열어젖힌 꽃 사이를 거닐면 누구나 꿈같은 풍경의 주인공이 된다. 고혹적인 자태로 사람들의 마음을 흠칠 준비를 마쳤다. 해바라기 소문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사진작가 한두 명이 난정리를 찾은 후 며칠이 지나자, 버스 가득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서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무더웠던 지난여름 해바라기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했던 마을 주민들의 수고로움이 단박에 기쁨으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제, 올해 처음 이곳 난정리 마을에서 해바라기 축제를 개최할 일만 남았다. 노란 물감보다 진하게 물든 해바라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노란 희망을 가득 품었다.

### 10만 송이 희망, ‘난정리 해바라기 마을정원’

“난정리는 공기 맑고, 깨끗한 저수지와 넓은 평야, 북한 땅까지 내다보이는 좋은 지역인데도 특별한 볼거리가 많지 않아 찾아오는 방문객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박용구(49) 난정1리 이장은 교동을 찾는 사람들이 대룡시장을 휩 둘러보고 발걸음을 옮기는 게 못내 아쉬웠다. 난정리 마을을 교동의 자랑거리로 만들자는 마음을 모아 마을 주민들이 해바라기를 심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지난 2017년 시범적으로 심어본 해바라기가 잘 자라났다. “우리 마을이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아서 해바라기가 아주 잘 자란대요. 해바라기 씨앗은 모두 제주도 초콜릿 공장에서 가져가기로 계약했거든요. 올해는 10만 송이를 목표로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사진 © 임선후 작가



교동면 난정리 마을은 45가구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작은 동네다. 100여 명의 주민 중 청년은 8명밖에 안 되는 고령 마을이지만, 주민들은 마을을 살려보자는 뜻을 모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난정 저수지 인근 공유수면 3만3,000㎡에 해바라기를 심기 시작했다. 먼저, 마을 주민들은 황무지였던 돌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흙을 메워 해바라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비닐하우스에서 곱게 길러낸 해바라기 묘종을 저수지 근처로 옮겨 심었다. 유난히 가물었던 지난여름, 장마 기간 동안에도 비가 오지 않아 주민들은 호스를 끌어와 해바라기에 물을 주기도 여러 번이었다. “해바라기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고라니가 자주 해바라기 묘종을 파먹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자동차 불빛을 켜놓고 밤새 고라니를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마을 주민들의 정성과 사랑 속에 ‘난정리 해바라기 마을정원’의 꽃들은 무럭무럭 자라갔다.



쓰러진 해바라기 밭 앞에 만개했을 때의 해바라기 사진을 걸었다. 내년에는 사진이 아닌, 진짜 해바라기가 활짝 필 것이다.

태풍에 휩쓸린 해바라기와 축제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해바라기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노래자랑, 가수 공연, 각종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도 신나게 준비했다. 해바라기 씨앗을 수확하기 전인 11월 초까지 활짝 핀 해바라기를 마음껏 뽐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축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난 9월 7일 새벽, 태풍 링링이 교동을 덮쳤다. 집과 창고는 부서지고 농작물을 키우던 시설물은 엇가락처럼 휘었다. 꺾이고 잘리고 태풍 링링이 몰고 온 강풍에 주민들이 함께 키운 10만 송이의 해바라기는 모두 속절없이 쓰러져버렸다.

마을 주민들은 우비를 입고 난정리 해바라기 마을정원으로 몰려들었다. 밤새 해바라기가 걱정돼 한숨도 못 잔 눈을 부비고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 비참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좌절할 수는 없었다. 꺾여버린 해바라기는 어쩔 수 없지만, 쓰러진 꽃들은 일단 세워보기로 했다. 활짝 핀 해바라기는 볼 수 없더라도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자식 같은 해바라기를 위해 뭐라도 해야 했다. 아직 호우 경보가 한창인 비가 오는 곳엔, 주민들은 농사로 굳어진 손으로 해바라기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막대에 고정시켰다. “속상하죠. 눈물도 나고요. 가뭄도, 고라니 공격도 이겨내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준 녀석들인데… 한 송이라도 꽃을 피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바라기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거든요.” 김화성(62) 어르신은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해바라기를 일으키느라 여념이 없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볼에 흘러내리는 물기를 연신 닦아낸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날에도 주민들은 태풍으로 쓰러진 해바라기를 일으켰다.



다시 기대하고 품어보는 노란 희망

마을 사람들의 의지를 모아 추석 연휴에 간단히 마을 축제를 열었다. 태풍이 오기 전 아름다움을 뽐냈던 해바라기의 사진을 행사장에 세워놓고 ‘이곳이 태풍 전에는 이렇게 예쁜 곳이었다’ 서로 위로를 하기도 했다. 빗속에서 일으며 세웠던 해바라기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아직 많은 꽃들이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지만, 간간히 눈에 띄는 노란 꽃송이 덕분에 내년엔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자며 다시 희망을 품어본다. “난정리 주민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신반의로 시작한 해바라기 마을정원은 이제 평화의 섬 교동도의 핫 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박용구 이장은 마을 주민들의 희망을 모아 내년 봄에는 이곳에 유채꽃을, 가을에는 해바라기를 심어 교동을 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해바라기의 꽃말 중 하나는 ‘기다림’이다. 오직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그런 해바라기를 기다리는 난정리 주민이 묘하게 잘 어울리는 꽃말이다. 1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난정리 마을 주민들의 마음엔 이미 노란 희망이 가득하다. 이제, 내년에 교동 난정리 마을을 다시 찾아야 하는 이유가 생긴 셈이다.

인천시 강화군이 제13호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우리 시는 기록적인 강풍을 몰고 온 제13호 태풍의 피해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10개 군구에서 102억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그중 71억원의 피해를 입은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총 53억2,2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피해 복구와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민의 마음 모은 소통의 광장

시청 앞 모습이 달라졌다. 넓은 잔디밭과 푸른 나무, 시원한 분수... 소풍이라도 가고 싶은 친근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문화 공간으로, 또 민의를 표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애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10월 11일 시민들 앞에  
선보이기 위해,  
한창 마무리 중인 인천애풀.

### 시청 앞 광장, 시민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시청 앞 딱딱하고 차가운 회색빛 시멘트 바닥과 아스팔트가 모두 걷히더니, 어느새 푸른 잔디가 넓게 자리를 잡았다. 차량을 통제하던 정문도 사라졌다. 평상과 휴게 그네, 피크닉 테이블 등 곳곳에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고, 새로 생긴 바닥 분수에서는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는 물줄기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온다. 시청 앞 모습이 확 달라졌다. 인천시청 앞 광장이 ‘시민이 우선인 시정, 사람 중심의 인천을 만들고 싶은 소망’을 담아 오롯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 ‘인천애풀’로 새롭게 바뀌었다.

인천시청 앞 공간은 2002년 광장 개장 이후 17년이 지나 분수 설비 등 시설 노후와 도로로 인한 접근성 제한, 휴게 시설 부족, 둔덕을 쌓아 녹지를 조성하는 등 폐쇄된 공간이라는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첫 사업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진입과 소통을 위해 시청과 미래광장을 연결하는 ‘열린 광장’ 조성 사업을 주문했다. 시청사 정문과 담장을 허물고 미래광장을 시청사 내부까지 확대해 도로로 단절된 공간을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취지였다. 특히, 열린 공간으로의 광장 조성은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 기획부터 조성까지 시민과 함께한 열린 공간

시는 그동안 공모한 시민 아이디어와 시민·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단 회의, 시민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시청 앞 공간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시청 주차장을 청사 내 운동장으로 이전하고, 정문 앞 로터리를 폐쇄해 교통 노선을 정비하고,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한 것은 모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시민자문단 모집 공고를 통해 위촉된 시민들과 도시계획·교통·디자인·조경 분야 등의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자문위원들의 활발한 의견을 통해 시공과 준공 후 이용 활성화 등 발전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거듭해 왔다.

‘인천愛(애)들’이라는 광장 이름도 지난 6월 4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500인 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시민 공모로 선정된 이름 세 가지를 제안자들이 나와 각각 설명했으며, 길거리·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를 합산한 결과 강태원 씨의 ‘인천愛(애)들’이 최종 선정됐다. 강 씨는 제안 설명에서 “인천 시민들이 가족처럼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며 “가족들이 용기종기 모여 얘기할 수 있는 들(마당)을 생각했고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애(愛)를 넣었다”고 말했다.



## 오롯이 시민을 위한 ‘인천愛들’

우리 시는 ‘인천愛(애)들’ 개장과 함께 인천 시민의 날을 기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특히, 시민이 주체가 되는 콘퍼런스, 설명회, 사례 공유 등 시민 협치 한마당을 통해 시민 중심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현재 국내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천시의 모든 축제와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자칫 국가적 차원의 재난이 될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통제와 방역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개장식은 하지 않아도 ‘인천愛(애)들’은 10월, 모든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



1985년. 청사 준공 개청 당시의 모습.  
청사 전면에는 ‘깨끗한 항도 인천 건설’이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다.



1990년. 시청 앞 광장에서 농부가 벼를 말리는 모습이 이채롭다.  
당시 시청 근처에는 소를 키우는 목장도 있었다.

## 사진으로 보는 시대별 시청 모습

1985년 허허벌판 위에 시청사가 들어선 후,  
지금까지 청사 주변 풍경은 여러 번 바뀌었다.  
청사 앞 넓은 광장은 행사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론 소풍날 관광버스의 집결지가 되기도  
하고, 별 좋은 날 농부들의 일터가 되기도 했다.  
시대별로 달라진 청사 앞 풍경을 모았다.

1986년. 시청에서 바라본 구월동 모습.  
건물이 뽀뽀하게 들어선  
지금의 모습과 달리 허허벌판이다.



1990년. 민·관·군 합동 방역 발대식 장면.  
이 당시 시청 앞 광장은 주요 행사장으로  
사용되곤 했다.



1998~2000년 추정. ‘월드컵 인천 미래가 보입니다!  
세계가 보입니다!’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는 시청사.  
청사 앞 넓은 광장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2002년. 시청 앞 광장이  
‘미관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당시 신문 기사에는  
자연친화형 도심 광장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SERIES 10.

## GERMANY MÜNCHEN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주도 | 면적 약 310.43km<sup>2</sup> | 인구 약 147만 명(2018년 기준)

세계 3대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를 알리는 퍼레이드

인천이 묻고, 세계가 답하다 ——  
세계가 인정한 '살고 싶은' 도시 탐방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뮌헨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시민은 광장을 좋아합니다'

우리 시 민선 7기 시정 슬로건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다. 거창한 구호 대신 소박하지만 핵심이 담긴 메시지다. 시민 참여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살고 싶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열 번째는 독일 뮌헨(München)이다.

글 민경선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사진 셔터스톡

## 독일 경제·문화의 중심인 공항 도시

뮌헨은 독일 바이에른주의 주도로, 약 147만 명의 인구를 지닌 독일 경제와 문화 예술의 중심지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국제공항이 있는 뮌헨은 중부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이뤄진 여러 문화권의 교류로 다양한 양식의 예술과 문화가 진흥할 수 있었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머서(Mercer)는 매년 전 세계 450개 이상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생활환경 순위를 발표한다. 2019년 조사 결과, 뮌헨은 오스트리아 빈과 스위스 취리히에 이어 3위에 올라 수년째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꾸준히 선정되고 있다.

뮌헨은 전통을 간직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유명하다.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찬란한 문화유산이 뮌헨 시내 곳곳에 남아 있다. 또 바그너와 음악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오페라 페스티벌이 매년 뮌헨 오페라 하우스에서 개최되며, 세계적 오케스트라인 뮌헨 필하모니, 바이에른 국립 관현악단,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이 있다. 그리고 뮌헨에 위치한 국립독일 박물관, 알테 피나코테크 미술관 등 다수의 세계적인 박물관과 미술관 및 화랑은 도시의 예술적 풍광을 더욱 강렬하게 선사한다.



1158년부터 뮌헨의 중앙광장 역할을 해온 마리에넬 광장(Marienplatz).

공항 도시, 다양한 양식의 예술과 문화가 만나는 도시, 산업 도시라는 측면에서 뮌헨과 인천은 공통점을 공유한다. 삶의 질과 생활환경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뮌헨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유의미한 자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구시가의 중심 역할을 하는  
오데온 광장(Odeonsplatz).  
주변에 즐비한 노천카페는 뮌헨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다.(왼쪽)

세계 3대 축제로 일컬어지는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는  
뮌헨의 테레지엔 비제(Theresien Wiese)  
광장에서 매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개최된다.(오른쪽)

시민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뮌헨의 광장

뮌헨의 매력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도시의 명랑함을 보여주는 활발한 ‘광장 문화’다. 특히 1158년부터 뮌헨의 중앙광장 역할을 해온 마리엔 광장(Marienplatz)은 여전히 도시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을 위한 만남의 광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리엔 광장 주변으로 구시청사, 레지텐츠궁, 알테 피나코테크 미술관, 자동차 박물관, 프라우엔 교회 등 관광 명소가 몰려 있다. 마리엔 광장의 가장 큰 행사는 축제 ‘크리스마스 시장’이며, 마리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인파와 예술가들의 버스킹 공연은 도시 뮌헨의 활력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세계 3대 축제로 일컬어지는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는 뮌헨의 테레지엔 비제(Theresien Wiese) 광장에서 매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개최된다. 테레지엔 비제 광장에서의 축제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뮌헨을 찾아온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흥겨움을 나누는 장이 되고 있다. 또 뮌헨의 카를 광장(Karlsplatz)은 유명한 쇼핑 매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요 관광 명소로 향하는 중심 도로 역할을 하며,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구시가의 중심으로 알려진 오데온 광장(Odeonsplatz) 옆에는 웅장한 테아티너 교회와 용장 기념관인 펠트헤른할레가 있다. 오데온 광장과 주변에 즐비한 노천카페는 뮌헨 시민이 일상에서 여유를 찾고자 방문하는 휴식처가 된다. 유럽에서 광장은 인위적으로 조성되기보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도시 계획에서 시민과의 소통과 교감을 중요시하는 정책 환경과 뮌헨에서 발전한 광장 문화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을 위한 열린 광장 ‘인천愛(애)들’

인천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시청 앞에 시민을 위한 열린 광장인 ‘인천愛(애)들’을 조성한다. 인천愛(애)들이라는 명칭은 시민 공모와 회의를 통해 선정됐고, 광장은 행사 및 모임 공간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쉼터, 바닥 분수, 음악 분수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향후 인천愛(애)들에서의 다양한 여가·문화 행사 및 야간 경관 연출을 위한 미디어 파사드 운영이 계획되어 있다. 아직 인천愛(애)들 조성 이후 보행로와의 연결성 강화, 주변 상업 시설과의 연계, 다각적인 광장 활용 방안 모색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으나 기존의 다소 폐쇄적이던 시청 앞 공간을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뮌헨이라는 도시의 활력은 열린 광장 문화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이와 같은 도시의 활력은 다시 뮌헨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천愛(애)들은 인천의 시정 운영에서 개방과 소통의 가치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뮌헨이 1972년 올림픽 개최 당시 내세운 슬로건은 ‘뮌헨은 당신을 좋아합니다’였다. 이 슬로건은 뮌헨이라는 지역 사회에서 당신은 환영받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류애적이고 민주적인 가치가 오늘날 뮌헨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다. 인천과 뮌헨은 공항 도시이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두 도시의 발전에서 공동체 의식과 화합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도시 정책과 시민이 괴리되어서는 실제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오늘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도시 정책이 각광받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애착을 갖고,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공유하는 문화가 인천愛(애)들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2009  
2019

## 세상과 세상을 이은, 10년의 기록

2009년 10월 19일,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세계에서 7번째로 긴 사장교斜張橋이자, 우리나라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의 개통.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2019년 9월 현재, 인천대교 개통 이후 차량 누적 이용량은 약 1억 3,800만 대. 그 길로 새로운 역사가 쌓이고, 대한민국은 세계와 더 가까워졌다. 인천대교 10주년. 개통까지 그 땀의 흔적과, 바다와 땅을 연결하고 세상을 이은 지난 10년을 돌아본다.

조수 간만의 차 9.3m,  
해무로 인한 작업 일수 한 달에 20일,  
교각 위에 상판을 얹는  
정밀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거친 바다.  
인천대교를 건설한 52개월의 시간은  
바다를 극복한 과정이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개통	2009년 10월
공사 기간	52개월
투자 비용	2조4,860억원
주경간장	800m
총 연장	1만8,384m
주탑 높이	234m
해상 높이	74m
도로	왕복 6차선

영국의 건설 전문지 ‘컨스트럭션 뉴스’가 선정한  
‘경이로운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  
(10 Wonders of the Construction World)’이자  
국내 최초로 미국 토목 학회의  
‘세계 5대 우수 프로젝트’에 꼽힌 작품,  
바로 인천대교다.





1 | 2006.8.8  
공사가 한창인 인천대교.  
인천대교의 개통으로 인간이 품었던  
다리에 대한 상상은 현실이 됐다.

2 | 2008.12.16  
인천대교 사장교 구간 마지막  
상판 연결 공사.

3 | 2009.9.10  
개통 한 달 전,  
역사의 서막을 앞둔 인천대교.

4 | 2009.10.17  
'인천대교개통기념걷기대회'.  
평생 단 한번, 바닷길을 밟은 역사의 현장.

인천대교  
개통까지, 10년

INCHEON BRIDGE  
PROJECT HISTORY

1999

07.  
김대중 전 대통령  
캐나다 방문 시  
양국 정상 간  
투자 약정 체결

2001

07.  
정부에서 인천대교  
민간 투자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인천대교(주)  
지정

2005

06.  
교량명 '인천대교'로 확정  
기공식, 사업관리 권한  
국토해양부에서  
한국도로공사로 위임

2005

07.  
민자 구간 착공  
12.  
국고 구간 착공  
'경이로운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로 선정

2006

03.  
올해의 베스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상 수상

2008

02.  
사장교 주탑 완공

2008

11.  
접속교(PFCM교) 상판  
가설 완료  
12.  
사장교 상판 가설 완료

2009

02.  
고가교(FSLM교) 상판  
가설 완료

2009

09.  
사장교 아스팔트  
포장 완료  
10.  
인천대교 준공 및 개통

2009

12.  
고속도로 우수 구조물 선정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 대상 수상  
(대한토목학회)

2009년 10월 19일,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가 세상 앞에 당당히 모습을 나타냈다. 인간이 품었던 다리에 대한 상상은 현실이 됐다. 육지와 섬을 잇는 21.38km의 길은 해상 구간만 18.38km에 이른다. 여기에 208개 케이블이 얹힌 주탑이 다리를 튼튼히 지탱하고, 100년 수명을 자랑하는 육중한 교각이 다리 밑을 든든히 떠받친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통로로, 앞으로 90년은 거뜰할 것이다. 세계에서 7번째로 긴 사장교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 인천대교의 개통으로 서울 남부,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통행 시간이 40분 이상 단축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송도국제도시까지는 1시간에서 15분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인천대교 10년. 2019년 9월 현재 인천대교 개통 이후 차량 누적 이용량은 약 1억3,800만 대. 대한민국은 세계와 더 가까워졌다. 땅과 바다, 하늘을 활짝 열고 세계의 사람과 물류를 연결하는 길. 이 다리를 지나는 모든 이야기가 쌓이고 쌓여, 이 땅의 역사가 되고 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인천대교는  
교량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하늘과 땅, 바닷길을 따라  
세계의 물류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후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자산이다.





## 인천은 나의 자양분

글·조각 고정수

인천에서 나고 자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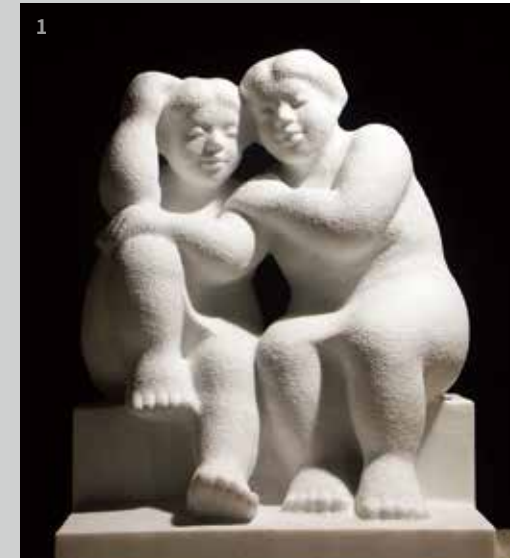
홍익대 조소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전 대상, 문신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인천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은 ‘바다’ 그리고 ‘개항 도시’다.

인천 앞바다를 거쳐 새로운 문물을 접한 대한민국! 그 역사의 중차대한 변곡점 역할을 다해온 인천 앞바다를 이웃하고 자라온 나의 삶, 역시 바다를 가까이한 운명적 격랑의 세월일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린 시절, 거의 매일 바다 개펄에 나아가, 개펄 흙뽕치를 마치 눈싸움 하듯이 던지면서 친구들과 뒹굴며 천방지축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밀물과 썰물을 따라 겁도 없이 멀리 축항까지 나아가 온종일 망둥이 낚시질을 하고는 저녁 무렵이면 수확한 수백 마리의 망둥이를 검정 전깃줄에 꿰어 어깨에 걸치곤 짐짓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한때 인천 시민 모두의 한여름 으뜸 피서지로 명성이 자자했던 낙섬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대신 그 자리엔 지금의 송도국제도시가 보무도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 당시엔 내가 다니던 신흥초등학교 부근인 답동, 신포동이 가장 중심가였고, 송도, 주안, 남동, 부평만 해도 외곽 지대였다. 최근 내 고향 인천이 부산, 대구를 제치고 서울 다음의 큰 도시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인천이 고향인 나로선 무척 흐뭇한 마음이다.

난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내 어린 시절 그리움의 대상인 그 바다를 표현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청관과 자유공원 그리고 하인천 부둣가에서 이젤과 화판을 들고 다니며 수채화에 열중하곤 했다. 또 당시 미술 실기 대회는 항상 청관을 기점으로 열렸기에 대회 전 좋은 구도를 잡으려는 의욕으로 곳곳을 미리 살피고 다니기도 했다. 또한 중·고교 시절, 내 삶의 큰 에너지를 생성하게 해준 미술 교사 송덕빈 선생님을 만난 것도 나로선 엄청난 행운이었다. 그때 비로소 미술반 활동을 통하여 한 차원 높은 다양한 조형 감각을 터득하게 되었는데,



당시 수준으로는 획기적인 수업 방식이었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돌멩이를 가져오게 하여 모자이크 만들기, 신문지를 물에 불려 만든 종이 찰흙으로 탈이나 불상 만들기, 각종 플라스틱을 불에 그슬려 접착한 조형물 만들기 등 귀중한 체험을 했다. 그 후 미술반 출신들이 모여 ‘남미모(인천남중고 미술반 모임)’를 결성, 얼마 전엔 송덕빈 선생님 회고전도 열어드린 바 있다.

돌이켜보면 바다에서 보냈던 유년 시절, 그리고 청관과 인천남중고 미술반의 소년 시절이 바탕이 되었기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렇듯 인천은 그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내 존재감의 근원지이다.

얼마 전 인천 모도에서 실로 오랜만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생후 20년 동안 인천이라는 토양에서 자양분을 섭취한 후 다른 지역에서 가공된 나 자신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의 뿌리인 인천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불사르고 싶다고.

근대에 이르러 가장 성공한 이민 국가의 사례가 미국이다. 바라건대 인천이 토박이보다 오히려 외지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진영 논리를 넘어선 에너지가 충만한 큰 그릇의 청년처럼 리버럴(Liberal)하게 거듭 나아가길 바란다. 마치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 묵묵히 정화시켜 나가는 한없이 넓고 큰 바다처럼 말이다.



작품-11 160x90x60cm 브론즈 1981

1 작품-21 59x46x40cm 대리석 2004 | 2 사이좋게 지내자 35x30.5x32cm 대리석 2014 | 3 약 오르자! 200x196x230cm 공기조형물 2014



## ‘짜장면 한 그릇’에서 피어난 바다 같은 사랑

아름다운동행인천 강병인 대표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어린 시절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었다. 중국음식점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꿀꺽꿀꺽 삼키던 병인은 지금 ‘나눔의 짜장차’를 타고 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짜장면을 만들어 주는 봉사단체 대표가 되었다.’

시  
민  
시  
장  
-  
강  
병  
인

졸업식이나 입학식 날이면 ‘짜장면집’은 붐비기 일쑤였다. 자식을 고아원으로 보내는 어머니 해외 입양을 결정한 아빠도 중국음식점을 찾았다.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부모는 짜장면을 덜어주고 또 덜어주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짜장면 한 그릇’의 의미는 그랬다. 강병인(51) 아름다운동행인천(이하 아동인) 대표가 어렸을 때도 짜장면은 귀한 음식이었다. ‘중국집’에서 새어나오는 짜장면 냄새가 코를 찌를 때마다 어린 병인은 생각했다.

‘짜~이, 어른이 되면 꼭 짜장면집 사장이 될 거야.’

세월은 흘러 지천명의 나이를 맞은 그. 중국집 사장은 못 됐지만 대신 짜장면을 대접하는 봉사단체 대표로 우뚝 섰다.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강 대표는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1,500여 그릇의 짜장면을 조리한다.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숙자, 어르신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이기 위해서다.

“‘천사데이’(10월 4일)를 기념해 여는 ‘아동인’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모처럼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신나는 문화 공연도 즐기는 시간이지요.”

강 대표는 “매년 10월에 나눔의 짜장차 희망나눔축제를 개최한다”며 “어쨌거나 짜장면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어린 시절 꿈을 이룬 셈”이라며 활짝 웃는다.

아동인의 짜장면 봉사는 1년 내내 계속된다. 강 대표는 1t 트럭 ‘나눔의 짜장차’를 타고 인천 전역을 누비는 것은 물론이고 소록도까지 달려가 원조 ‘인천 짜장면’의 맛을 보여준다. 그렇게 1년 동안 뽑아내는 짜장면만 대략 1만3,000여 그릇에 이른다.

강 대표가 짜장면 봉사에 소매를 걷어붙인 때는 2014년이다. 직장이었던 코스모스유람선이 부도난 뒤 인테리어 일을 시작했으나 이마저도 지지부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랑의 바다에 뛰어든 것. “아내와 아이들에겐 미안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자, 그게 행복이다 생각했지요.”

짜장면 나눔 봉사가 즉흥적 결정은 아니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봉사활동을 한 그는 ‘광명 사랑의 짜장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마음 한편엔 언젠가 인천에서 ‘나눔의 짜장차’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였다. 부평2동 15통 통장을 지내며 10년간 동네 사람들을 위해 일한 경험도 그의 결심을 부채질했다.

먹고살기 위해 20대 초반 고향 구례를 떠나 인천으로 온 이래 그는 백운관광호텔, 수봉관광호텔, 동인천뉴코아, 코스모스유람선 등 줄곧 서비스업계에서 일해 왔다. 그렇게 제2의 고향 인천에서 결혼해 낳은 아들 둘은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보험과 대리운전업을 부업 삼아 하는 강 대표는 후배가 사무실로 쓰는 옥탑방에서 이런저런 일을 본다. 500여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만 경비를 마련하다 보니 장 보는 것에서부터 조리까지 그가 손수 해낸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지만 차량이 없는 건 정말 불편한 일이다.

“광명 사랑의 짜장차를 얻어 타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봉사 안 가는 날만 골라 빌려 쓰는 거죠. 미안하기도 하고, 요청이 왔는데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강 대표는 “뜻 있는 분이 인천 짜장차 1호 마련을 위해 후원해 주시거나 중고차라도 기증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아름다운동행인천은 나눔과 섬김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손하트를 지어 보였다.





## CULTURE CALENDAR

OCTOBER 2019

## 10

## 이달의 展

중국 10대 화가 회준·기진민 초청전

10월 1일(화)~3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신진(청년) 작가 날개달다 2019展

10월 2일(수)~15일(화)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연수회, 연합 꿈에 날개를 달다

10월 2일(수)~15일(화)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인천아트페스티벌 ‘일상 속에서, 함께 또 따로’

10월 4일(금)~10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목의 향연전

10월 4일(금)~10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연수포토팩토리 사진전

10월 4일(금)~10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세계로 열린 문화 도시 인천세계미술대축제

10월 11일(금)~17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박명수 개인전

10월 11일(금)~17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남동구사진가연합 사진 작품전

10월 11일(금)~17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제5회 사랑나눔전

10월 18일(금)~24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미추홀구사진인연합회 회원전

10월 18일(금)~24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전국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10월 18일(금)~30일(수)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제5회 인하예술인회전

10월 18일(금)~30일(수)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한·중 국제 포토 페스티벌

10월 25일(금)~31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미추홀전시실

제37회 전국제물포사진대전

10월 25일(금)~31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03

소프라노 윤경희 독창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초대

☎ 070-4110-8290

## 04

인천시립합창단 청소년 문화 체험 마당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무료

☎ 032-438-7773

## 05

감성 특목!! 청소년 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 010-4458-2014

IRANG과 함께하는 ‘K-POP 음악 여행’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36

## 06

제22회 정기연주회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 춤 축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032-422-2426

완창 판소리 ‘심청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3만원

☎ 032-434-5749

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오후 4시

무료

☎ 032-440-4217

## 09

2019 인천해양미술축전 ‘평화의 서해 서막전’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홀

10월 9일~12일 오전 10시~오후 6시

무료

☎ 032-867-2196

## 11

뮤지컬 ‘맘마미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0월 11일 오후 7시 30분

10월 12일 오후 2시·7시

10월 13일 오후 2시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 1588-2341



스테이지 149-연극선집 II ‘해방의 서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0월 11일 오후 2시·7시 30분

10월 12일 오후 3시

전석 2만원

☎ 1588-2341

## 16

제4회 인천사랑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무료

☎ 070-4756-1904

2019 커피 콘서트Ⅷ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리사이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한국자동차산업전시회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4홀

10월 16일~18일

오전 10시~오후 5시

현장 등록 시 5,000원

(온라인 사전 등록 시 무료)

☎ 031-433-4073



## 17

제6회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만원의 강연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 032-505-6917

션&amp;이미셸의 ‘꿈꾸는 라이프’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무료

☎ 032-899-1517

어린이 뮤지컬 ‘육쟁이 할머니와 암탉’

학산소극장

10월 17일~18일 오전 10시, 11시(단체)

10월 19일 오후 4시(개인)

전석 1만원

☎ 032-866-3993

## 18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85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000원

☎ 1588-2341



2019 인천음악제 ‘관악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초대

☎ 032-873-7772

## 19

EQUM 제13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1만원, 학생 5,000원

☎ 032-765-6955

## 20

2019 인천음악제 ‘팝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전석 초대

☎ 032-873-7772

## 21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3~4홀

10월 21일~23일 오전 10시~오후 5시

현장 등록 시 5,000원(온라인 사전 등록 시 무료)

☎ 02-6121-6374

## 공연 티켓을

## 선물로 드립니다

## 굿모닝

## 컬처데이

10월에는 스테이지149 어린이명작무대 II

‘루루섬의 비밀’ 공연 티켓을

다섯 분께 2매씩 드립니다.

Good Morning Culture Day

## 22

인천남성합창단 제52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326-7603

## 23

인천여성가족재단합창단 제24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초대

☎ 032-517-1742

2019 인천직업교육박람회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2홀

10월 23일~25일 오전 10시~오후 5시

무료

☎ 032-420-8465

## 24

제36회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885-3611

\*10월의 굿모닝컬처데이 공연\*

스테이지149 어린이명작무대 II

‘루루섬의 비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0월 24일~25일

오전 10시 30분

10월 26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전석 2만원

☎ 1588-2341



## 25

시민에게 열린 무대 ‘우리도 예술가’

학산소극장

10월 25일 오후 7시

10월 26일 오후 4시

무료

☎ 032-866-3993

## 27

화인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전석 초대

☎ 032-873-7772

## 29

2019 인천음악제 ‘양상블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초대

☎ 032-873-7772

## 30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무지개 물고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0월 30일~31일 오전 10시 20분

전석 3만원, 단체 1만원

☎ 1588-2341

학산가족음악회 ‘응답하라 8090!’

학산소극장

오후 7시

무료

☎ 032-866-3993

## 31

인천시립교향악단 ‘사랑 태고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초대

☎ 1588-2341

&lt;굿모닝인천&gt;과 인천문화예술회관이 300만 시민 여러분께 매월 문화를 선물합니다.

&lt;굿모닝인천&gt; 모바일북 팝업 창으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매월 다섯 분께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공연 티켓 2매씩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 1) <굿모닝인천> 모바일북(www.mgoodmorningincheon.co.kr)에 접속한다.
- 2) 팝업 창을 클릭, 퀴즈 정답과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응모한다.
- 3) 당첨자 발표를 기다린다.
- 4)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 공연을 관람한다.



※ 상기 공연·전시 일정은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천아트플랫폼 10년

아트플랫폼으로  
달라진 것과 내일

글 이재연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1883년 제물포조약 체결과 동시에 개항이 시작된 개항장(해안동, 신포동) 일대는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퇴락한 창고 지대로 변해 있었다. 항만 기능이 약화되고, 주변에 송도나 청라 등의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대거 이주, 인구 공동화 현상까지 겪게 됐다. 슬럼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시와 시민단체,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나서서 이 지역 부흥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에 나섰다. 그러다 시민단체와 예술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13채

의 건물을 시에서 매입, 재생 사업에 착수해 2009년 9월 복합 예술 공간 ‘인천아트플랫폼’이 설립됐다.

국내외 작가 30여 명이 입주해 활동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와 3개 전시실,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이나타운과 인접해 문화·관광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인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국내외 문화·예술 인적, 물적, 정보 및 프로그램 등의 교환과 교류의 아고라이자 정거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개방성과 네트워크, 참여와 소통을 생명으로 여기는 문화발전소이다. 특히 옥내외 공간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축제가 끊이지 않는 역동적인 문화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원도심 재생 사업으로서 이만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원도심 재생 사업만이 아니라 문화·관광 차원에서나 문화·예술 자체로만 보아도 얻은 것이 대단히 많다. 요컨대 인천 문화·예술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인천아트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주된 사업은 레지던시, 전시, 공연 및 교육으로 요약된다. 대한민국 제3의 도시 인천엔 아직 시립 미술관이 없다. 공공 미술관 역할을 대신 수행해야 하는 미션에 따라 시민들이 애호하는 전시를 기본적으로 꾸준히 펼쳐왔다. 메인 전시장, 창고 갤러리, 원도 갤러리 등이 있어서 자체 기획 전시, 입주 작가 창작 발표, 기타 지역 작가 전시 등의 다양한 전시가 연중 30회 이상 열린다. 또 공연장에서는 음악, 연극, 무용 등의 공연이 기획, 무료 대관 등의 형태로 매주 2~3회 열리는 데, 특히 다양한 장르 간의 실험적인 협업 공연은 인천아트플랫폼이 자랑하는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레지던시 비중이 크다. 한 해 평균 30명가량의 작가가

1. 전소정·광인들의 배 단채널 비디오, 22분 50초, 2016 | 2. 심승욱·구축 혹은 해체 초산비닐수지, 구조목, 카드보드지, 아크릴릭, 가변설치, 2013 | 3. 고동어·몸부림 120 종이에 연필, 140x260cm, 2017

입주해 활동하는데, 10년 동안 무려 300여 명의 작가가 거쳐갔고, 그들의 빛나는 커리어에는 ‘인천’이라는 기록이 선명히 남아 있다.

물론 인천아트플랫폼 10년의 과정을 반추할 때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인천아트플랫폼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미션이 대단히 많았다. 창작 지원, 전시 등을 통한 콘텐츠 창작, 교육, 국제 교류, 문화·관광... 심지어 장터까지 미션이 되기도 한다.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실은 무리한 업무 수행을 피할 수 없게 한다.

설립 초부터 지역 예술인들은 지역 예술인들대로 기대치가 높았다. 보편성과 지역성을 적절히 조율한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책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인천아트플랫폼이 기획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본연의 사업이다 보니 지역 예술가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머지않아 시립미술관이 개관하면 인천아트플랫폼은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레지던시 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산을 증대시키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아트플랫폼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국제적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답게, 그리고 문화·예술 교류의 허브로서 명성과 위상을 한 단계 더 올려야 한다. 멜버른의 아시아 링크를 능가하는 채널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예술 플랫폼으로 명과 실을 견고히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레지던시가 입주 작가들의 창작 지원에는 적극적이지만, 손대지 못하는 것이 있다. 입주 예술가들의 생활고 문제다. 입주만으로도 특혜일 수 있지만 레지던시의 시스템이 향후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도 프로모션은 필요하다. 과도하게 시장과 연결하기보다는 입주 작가 커뮤니티 자체로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자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전문가 양성이 함께 병행되어 스튜디오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들을 시장과 연결해 주는 것.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하면 지역의 예술계에까지 확대 시행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인천아트플랫폼 10주년 기념 행사는 ‘역량을 인정받는 상태’에 종속의 모멘텀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Over Drive’라고 명명했다. 가장 실험적 성과가 좋은 작가로 선정된 15인의 작가전 외에도 오픈 스튜디오, 아카이브, 국제 포럼, 인천아트플랫폼과 인연이 되어 인천에 정착한 작가들의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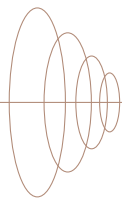
2009  
2019

사진 © 류창현



## IMAGE

### NEWS



인천 2030 미래 이음  
‘나무가 아닌 숲을 봅니다’

#멀리 내다보겠습니다. #‘인천시 2030 미래 중장기 비전’ 발표  
#300만 시민과 함께 #인천의 10년 후를 만들어 갑니다.

01



‘살림’과 ‘이음’

#시민 행복이 우리의 보람 #경제, 지역, 민생은 #‘살리고’  
#지역, 시민, 민관은 #‘잇는’ #인천의 미래

02



한 그루 나무부터 뿌리 깊게

#원도심, 교통, 일자리·경제, 문화·체육·관광, 소통...  
#300만 시민을 위한 #행복 정책  
#하나씩 하나씩 #이 순간에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03



10년 후, 확실한 미래

2030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인천 #내일이 더 행복한 인천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체감하는 변화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04

##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

우리 시는 중장기 발전 비전인 ‘인천 2030 미래 이음’ 사업 발표를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우리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강화도 내 양돈 농가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시민 비상행동수칙을 공표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취했다.

자살 유족에게 상담부터 법률 자문·임시 주거지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우리 시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인천e음 카드’로 한국GM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볼트 EV)를 사면 30만원 할인 혜택을 받는 이벤트가 오는 12월 까지 진행된다.

우리 시는 원도심 취약계층 주거지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에 선정됐다.

우리 시가 옛 수인선, 축항선처럼 방치된 폐선 철길과 부지를 도시 숲길이나 역사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NEWS

BRIEF

인천 중장기 발전 ‘인천 2030 미래 이음’ 본격 시동

인천시 중장기 발전 비전인 ‘인천 2030 미래 이음’ 발표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시는 ‘더 많이 살리고 더 튼튼하게 잇자’는 취지의 ‘살림과 이음’ 사업인 인천 2030 미래 이음 설명회를 지난 9월초 시작, 한 달간 진행해 9월말 마무리했다.

이 기간 경제, 도시, 시민, 환경, 소통 행정, 재정, 해양·항공, 교통, 원도심, 일자리, 문화·관광·체육, 남북·국제, 안전 등의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 진단과 실질적 해결 방안, 사업 방향이 제시됐다. 이들 사업의 핵심은 오랜 기간 지체하거나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의 과제들을 새롭게 살려내서 미래의 발전 동력으로 이어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는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늘리는 ‘살림’과 내수 경제 증진과 외부 확장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음’으로 짜여졌으며, 도시 분야는 도시 기본 기능의 �신(살림), 광역 순환 교통망 완성과 북한 지방정부와의 교류(이음)로 방향을 잡았다. 시민 분야는 복지·생활 여건 증진과 자금심 고취(살림), 지역 균형과 시민 공동체 증진(이음), 환경 분야는 청색 환경 도시(살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 순환 정책(이음), 소통 행정 분야는 지표와 성과 중심 행정 혁신(살림), 소통과 협치로 행정 신뢰와 사회 통합(이음) 등으로 각각 구성됐다.

이번에 진행된 11개 분야의 구체적 사업들은 ‘살림과 이음’ 비전으로 상호 연계되고 융합되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2030 미래 이음은 숙원 과제들을 한층 새롭고 성숙한 미래 발전 과제로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성료했다”고 말했다.

시 정책기획관실 032-440-2382



‘폐선 철길·유휴 부지 활용’ 용역 착수



사진 © 류창현

우리 시가 옛 수인선, 축항선처럼 방치된 폐선 철길과 부지를 도시 숲길이나 역사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구도심에 방치된 폐선 철길과 유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인천 원도심 철길 주변 활성화 방안 용역’을 착수했다.

사업 대상은 옛 수인선, 동양화학선, 축항선, 주인선, 북해안선, 부평군용철도 등 6개 노선과 이 일대 철도 유휴 부지다. 시는 이러한 철길과 인근 부지를 사람들이 찾는 숲길과 역사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구도심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시 정책기획관실 032-440-2395

인플루엔자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시작

우리 시는 지난 9월 17일부터 처음 접종을 시작하는 만9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인천 지역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은 562개소이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대상자는 사업 기간에 맞추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 접종을 받으면 된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43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신속 대처



우리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강화도 내 양돈 농가가 기르는 돼지 3만8,001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 비상행동수칙을 공표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취했다. 시는 지난 9월 27일 강화군청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열병 관련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국가 위기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강화도 내 모든 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다. 시는 원활한 살처분 추진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100% 보상과 살처분 용역업체 장비 임차료·인건비 등에 필요한 약 9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강화군 등 군·구 및 유관기관에서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대책본부 및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등에 4개의 거점 소독시설과 35개의 농가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아울러 10월에 열리는 축제나 행사를 대부분 취소하거나 연기함으로써 돼지열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5

공동 육아 ‘혁신육아카페’ 연내 3곳 개장

우리 시는 공동 육아 공간인 ‘혁신육아카페’(가칭)를 연내 남동구·서구·미추홀구 등 3곳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혁신육아카페에서는 부모들이 영유아 자녀와 함께 놀아주며 다른 부모와 놀이·체험학습 정보를 공유하고 육아 전문가의 육아법도 배울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다. 시는 주민센터, 아파트 공동 커뮤니티 시설, 폐원 가정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혁신육아카페를 2020년 30개, 2021년 80개, 2022년 1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시 육아지원과 032-440-2957

애물단지 빈집, 마을재생 거점으로 만든다

우리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 인천도시재생연구원과 협력해 ‘국민 참여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 참여 빈집 활용 프로젝트는 빈집을 활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리빙랩 기법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교육 및 컨설팅, 빈집을 활용한 사업장 제공 등의 행정 지원을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빈집 활용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접수해 10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시는 ‘빈집 아이디어 사업화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우수팀 2~3개에게 사업장 활용이 가능한 빈집과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주거재생과 032-440-3488

‘공공심야약국’ 3개소 운영

우리 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심야 시간 및 휴일에 시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취약시간대(심야 시간 및 휴일 등)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최소화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이번에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은 미추홀구 인영약국(070-8874-7561), 부평구 동암프라자약국(032-421-8642), 서구 성모약국(032-583-6083)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 의약품 판매, 건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32





### 남동국가산업단지, 2020년 스마트산단 최종 선정



남동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2020년 스마트산업단지’에 선정됐다. 스마트산단은 노후 산단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제조 혁신과 고부가가치화 등 체질 개선을 꾀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해 성장하는 산단이다. 전국 8개 지자체가 신청한 이번 스마트산단 신규 입지 공모는 인천 남동산단과 경북 구미산단 등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산단 제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스마트 통합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시 산업진흥과 032-440-4288

###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준비 중

우리 시는 9·19 평양 공동 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연내 의약품 기증을 시작으로 학술 교류 등 남북 교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먼저, 북한 5세 미만 아동 및 산모 등에게 지원할 인도적 차원의 ‘북한 원료 의약품 기증 사업’을 추진한다. 감염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항균제 등 원료 의약품 16종을 중국에서 구입해 기증할 예정이다. 또 서해평화포럼과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서해 평화포럼 국제회의를 오는 11월 7일~8일까지 송도 쉼라톤그랜드인 천호텔에서 개최한다. 이외에도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이 확정된 여자 하키 종목에 훈련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선학하키장을 훈련장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 기획조정실 032-440-8577

### ‘제9기 시민감사관’ 위촉

우리 시는 지난 9월 2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9기 시민감사관 7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제9기 시민감사관은 법률, 세무, 건축,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되어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제보와 감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시 감사관실 032-440-3134

### 마을주택관리소 확대…2022년까지 20곳 이상

우리 시는 원도심 취약계층 주거지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중구·동구·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서구 등 6개 구에서 운영 중인 마을주택관리소 11곳을 2022년까지는 10개 군·구 2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가 2015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마을주택관리소는 도배·장판 시공, 싱크대·창호 교체, 택배 보관, 공구 대여, 지붕 수리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시 주거재생과 032-440-348

### 10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우리 시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무단 방치·운행 정지 명령(대포차)·불법 튜닝·안전 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적발되는 불법 튜닝·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 복구 명령 이행 및 임시 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 교통관리과 032-440-3932

### 인천e음카드로 한국GM 차량 구매 시 할인

우리 시가 발행하는 전자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한국GM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볼트 EV)를 사면 30만원 할인 혜택을 받는 이벤트가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인천e음카드를 사용하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리점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과 인천e음카드만 지참하면 된다. 인천e음카드로 전기차 볼트 EV를 살 경우 정부 지원금 1,400만원 지원 혜택과 함께 추가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2022년까지 전기·수소 연료 자동차를 2만 2,000대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를 2만 대까지 늘리고 수소 연료 자동차 또한 2,000대 보급할 예정이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6

### 자살 유족 돕는 ‘원스톱 서비스’ 시작

우리 시는 자살 유족에게 상담부터 법률 자문·임시 주거지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지난 9월 16일부터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자살 유족의 추가 자살을 예방하고 일상 복귀에 도움을 주는 국가사업이다.

자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전담 직원이 출동해 유족에게 초기 심리 안정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또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 주거 제공 등 서비스를 안내하고 개인정보와 서비스 제공 동의서를 받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시 건강증진과 032-440-1583

### 월미공원 물범 셔틀카 무료 이용 대상 확대

우리 시는 월미공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물범 셔틀카에 대해 무료 이용 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70세 이상 인천 시민, 국가유공자, 1~3급 장애인, 만 3세 이하 유아는 물범 셔틀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월미공원안내소에서 월미공원 정상까지 1.4km를 왕복 운행하는 물범 셔틀카는 성인 기준 왕복 1,500원, 어린이·청소년은 편도 500원, 왕복 800원이다.

월미공원사업소 032-440-5914

### 씨사이드파크에 스케이트파크 조성

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도시 씨사이드파크 내 스케이트파크 설치 공사를 마쳤다.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600m<sup>2</sup> 규모로 조성된 스케이트파크는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BMX를 탈 수 있는 시설이다. 씨사이드파크는 전체 면적이 177만m<sup>2</sup>에 달하며 해변을 따라 조성된 6km 길이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캠핑장, 레일바이크, 숲속유치원, 물놀이장 등을 갖춰 영종도 내 대표 공원으로 꼽힌다.

경제자유구역청 032-453-7763



###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오후 8시까지 운영

인천대공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종료 시각을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8시로 연장했다. 대공원은 직장인도 퇴근 후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단 동절기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기존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장한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만 입장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소독 청소 등을 위해 휴장한다.

인천대공원사업소 032-440-5838





COUNCIL  
NEWS

시의회, 강화군 돼지열병 방역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의장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관련, 강화대교 방역초소와 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시위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청취하고, 철저한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건설교통위,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점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십정2구역은 인천도시공사가 임대주택 550세대를 비롯한 공동주택 5,678세대를 짓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아파트 건설 공사에 착공해 2022년 2월 완공 예정이다. 현장 점검에 참석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공사 진행 사항 및 인근 공사 피해 주민 민원 처리 대책을 보고받은 후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진행 과정과 안전 관리 상태의 꼼꼼한 점검을 당부했다.



‘인천시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의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을 통해 인천의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소비행태개선연구회, 세미나 개최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지역 소비행태개선연구회’가 지난 9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부터 인천지역 소비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종합하고 인천연구원에 정책 연구 과제로 의뢰한 ‘신용카드 중심의 인천 역외소비 실태 분석’ 결과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는 지난 1월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조찬 회의, 타 시·도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실태 조사, 부문별 자체 토론회 등을 실시했으며 오는 10월 29일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경제위, 수소 에너지 간담회 후  
분당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인천시의회 별관에서 박진남 경일대 재생에너지학부 교수를 초청 ‘연료전지와 수소 에너지’의 안전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연료전지의 안전성에 관해 박진남 교수는 “연료전지의 위험도는 집에서 도시가스를 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일본에서는 2011년 원전사고 이후 가정용 연료전지가 널리 보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강릉 폭발사고는 수소탱크가 문제였으며 연료전지는 수소탱크가 없어 터질 위험이 없고 연료전지와 폭발이라는 단어는 연관성이 없는 단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인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와 동일한 형태인 한국남동발전(주)의 분당 발전본부를 답사하기도 했다.

이용범 의장,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9월 2일 NH농협은행 인천시청 지점을 방문해 극일(克日) 펀드인 ‘NH-Amundi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의 가입을 약정했다. 의장이 가입한 펀드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및 장비 분야 등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의장은 “인천시의회는 지난 8월에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수출 규제에 대한 철칙 촉구 1인 시위와 규탄대회를 열었다”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펀드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산초등학교, 청소년 의정교실 모의의회 참여

인천시의회가 지난 9월 25일 개최한 제229회 의정아카데미 청소년 의정교실에 인천미산초등학교 학생회 임원 24명이 참가했다. 전문 강사로부터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특강을 받은 학생들은 더욱 자신 있는 모습으로 조례안 등을 상정하고 열띤 찬반 토론을 통해 안건도 처리했다. 학생들은 이날 시의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모의의회를 개최해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 모의의회에 참여한 미산초등학교 학생들은 “평소에는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직접 의장, 시장, 의원 역할도 하고 안건도 처리해 보니 재미있고 새로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의회저널>에는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 032-440-6137~8 ㉠ www.icouncil.go.kr



인천이 그리다  
인천을 그리다  
Made in Incheon

인천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인천의 이야기,  
인천 시민 여러분의 색으로 채워주세요.

예술적 영감이 피어난 그때 그 거리

인천 차이나타운은 화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장소다. 차이나타운을 거닐 때마다 그 거리, 그 건축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연필 스케치로 가볍게 말을 걸고, 물감으로 채색하다보면 차이나타운은 깊은 내면의 속삭임을 들려주었다.

인천의 웬만한 작가들은 학창시절 개항장의 고색창연한 건물을 보며, 그 뒤로 넘어가는 노을을 보며 화가의 꿈을 키웠다. 석양이 질 때면 교복 입은 학생들이 군데군데 무리지어 이젤을 펼쳤다. 지금은 짜장면박물관이 된 ‘공화춘’을 처음 봤을 때 인천 차이나타운의 상징 같던 그 강렬한 인상을 잊을 수 없다. 1908년 문을 열어 서울과 인천에서 고급 중화요리 집으로 명성을 떨친 공화춘. 짜장면박물관이란 간판을 달기 전 찾은 공화춘은 내게 더 늙기 전 어서 나를 그려달라는 것 같았다. 지금은 짜장면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난 옛 공화춘을 인천 시민들과 함께 그려본다.



차이나타운 짜장면박물관  
중구 차이나타운로 56-14



<굿모닝인천> 9월호 드로잉 인천 당첨자



박혜선 부평구 동수전로



노선미 미추홀구 소성로



정은재 부평구 부흥로



고진수 남동구 경인로



김정훈 남동구 구월로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품을 보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2)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incheon.go.kr](http://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 독자마당 파일 첨부
- 3) 기간 : 2019년 10월 21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이 달의 드로잉  
김재열 작가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교수와 인천예총 회장을 역임했다. 16회에 걸친 수채화 개인전과 22회 동안의 NIB남인천방송 ‘인천 여행 스케치 기행’ 등을 진행했다. 현재는 인천미술협회와 한국미술협회 고문, 대한민국 수채화 작가 원로회 의장을 맡고 있다.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01 월미바다열차 타고 인천을 누벼요

월미바다열차가 10월 8일 정식 개통합니다.



이용 시간  
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금~일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매주 월요일 정기 휴일)  
할인 요금  
어른 6,000원, 노인 및 청소년 5,000원, 어린이 4,000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000원(당일 3회 재승차 가능)  
문의 : 월미운영팀 ㉠ 032-450-7600

02 세계적 도시와 세계적 디자인의 만남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에서 ‘2019 인천국제디자인포럼’을 개최합니다.

기간 : 11월 1일  
장소 :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홀  
대상 : 디자이너, 문화 예술 관련 기업, 전문가, 학생, 일반인 등  
사전 접수 : ㉡ www.indef.or.kr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 032-260-0246

03 골든타임 사수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2019 인천광역시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실시됩니다.

기간 : 10월 28일~11월 1일  
중점 훈련  
\* 웅진군 : 유해 화학 물질 유출  
\* 중구, 동구, 남동구 : 다중 밀집 시설 대형 화재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 지진으로 인한 복합 재난  
\* 계양구, 인천교통공사 : 지하철 대형 사고  
\* 서구, 강화군 : 지진에 따른 화재  
훈련 정보 확인  
\* TV, 영상 매체 : 방송국 홍보 영상 및 주요 전광판, 교통 시설 LCD 화면 등  
\* 인터넷, 웹사이트 : 시 및 군·구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문의 : 시 사회재난과 ㉠ 032-440-1842

04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를 즐겨요

환경 교육의 생활화를 이끄는 특별한 시간.  
‘2019년 제15회 대한민국환경교육한마당’이 인천에서 열립니다.

기간 : 10월 24일~26일  
장소 : 인천문학경기장 동문광장, 컨벤션센터, 개항장 일대  
주제 : ‘열쑤, 환경 교육’ 환경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  
참가자 : 전국 1,000명, 시민·청소년 5,000명  
문의 : 환경부 환경교육팀 ㉠ 044-201-6534

05 미추홀구에서 문화와 함께 놀아요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 2019 학산마당예술 ‘놀래’가 펼쳐집니다.

일시 : 10월 19일 오후 2시~8시  
대상 : 미추홀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장소 : 옛 시민회관 쉼터 및 ‘틈’ 문화 창작 지대 일대  
프로그램 : 동네, 살아지다展, 동네인형놀이단, 주민기획 문화 체험,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놀이 워크숍 및 문화 예술 체험,  
마당 예술 동아리 경연 마당, 시민 극단 및 생활 동아리 축하 공연  
문의 : 미추홀학산문화원 ㉠ 032-866-3993

06 마을이 행복해지는 이야기 들어보아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에서 ‘2019 마을 활동가 오픈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일시 : 10월 11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  
대상 : 마을 활동가, 마을 주민 등 관심 있는 시민, 관계자  
내용 : 인천 마을 대담회 및 대규모 공론장  
신청 기간 : 10월 8일까지  
신청 : ㉡ www.incheonmaeul.org  
문의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 032-777-8200

07 모두가 꿈꾸는 안전한 미래란?

미래 경찰과 과학 치안을 주제로 하는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KOREA POLICE WORLD EXPO 2019)’가 개최됩니다.



기간 : 10월 21일~23일  
장소 :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3~4홀  
내용 : 전시회, 수출상담회, 국제 CSI콘퍼런스, 사이버안전학술 세미나, 센테드학회 세미나,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  
신청 : ㉡ www.police-expo.com(사전 등록 시 무료)  
문의 :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사무국 ㉠ 02-6121-6374

08 동인천 시장, 그때 그 시절 추억 속으로

1970~1980년대 인천 최대 시장이었던 동인천 시장을 추억하는 ‘2019 동인천 낭만 시장’이 개최됩니다.



일시 : 10월 5일~6일 낮 12시~오후 9시  
장소 :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  
내용 : 공식 행사, 공연, 퍼포먼스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시장 활성화 이벤트, 먹거리 등  
참여 : ㉡ www.romancemarket.co.kr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032-440-4052

09 인천의 역사, 함께 배워 볼까요

인천의 역사와 미래를 배우는 ‘제98회 인천 향토사 강좌’가 개최됩니다.

일시 : 10월 7일 오후 2시~5시  
장소 : 인천역사자료관 내 세미나실  
주제 및 강사  
\* 한국 현대사와 인천의 정체성 찾기 (황규수 인천동산중학교 교감, 문학 박사)  
\* 헤이그 특사와 강화 의병 이능권 (이태룡 인천학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문의 : 시 문화재과 시사편찬팀 ㉠ 032-440-8382~3

10 배우며 즐기는 우리 전통문화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전통문화 예술 교육 및 체험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간 : 10월 14일~12월 6일  
과목 : 화각, 완초, 단청, 자수, 목공예, 단소, 대금, 지화, 장구, 민요  
모집 기간 : 10월 8일까지  
모집 인원 : 각 강좌별 15명 이내  
신청 방법 : ㉡ ilc.incheon.go.kr 또는 방문 접수  
강좌비 : 무료(단, 재료비는 교육생 부담)  
문의 :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 032-440-8080



11 아름다운 공장을 추천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합니다.

추천 기관: 각 군·구 기업 지원 부서 및 지원 기관

추천 기간: 10월 4일까지

추천 대상: 인천 소재 중소·중견 기업 공장 및 산업 시설

선정 방법: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통해 공장의 아름다움과 기술력, 안전,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해 선정

혜택: 지원 사업 선정 평가가점,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우대, 기업 육성 프로그램 우선 선정 등

문의: 시 산업진흥과 ☎ 032-440-4264

12 개성 넘치는 개항 도시 인천 이야기

인천도시역사관에서 2019 도시학당 ‘개항 도시- 도시의 개성을 읽다’를 운영합니다

기간: 10월 17일~11월 28일(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인천도시역사관 3층 강당

대상: 성인 80명

수강료: 무료

신청: 현장 및 전화

신청 기간: 10월 16일 까지

문의: 인천도시역사관 ☎ 032-850-6031

13 도란도란 재미있게, 뽀뽀빵빵 신나게

인천도시역사관에서 도시 속 놀이터 ‘도란도란 박물관 어린이 공방 - 교통편’을 운영합니다.

일시: 10월 26일 오전 10시~낮 12시(6세~초등학교 2학년), 오후 2시~4시(초등학교 3~6학년)

장소: 인천도시역사관 3층 소강의실

대상: 각 20명

수강료: 무료

신청: ☎ icmuseum.incheon.go.kr(선착순)

신청 기간: 10월 21일 오전 9시~24일 오후 6시

문의: 인천도시역사관 ☎ 032-850-6016

14 노동자의 삶 속에 스민 인천의 모습

인천시립박물관에서 2019 인천 민속 문화의 해 특별전 ‘메이드Made 인인 인천-노동자의 삶, 골목에서 핀 젓빛 꽃’을 개최합니다.

내용: 광복 이후 수출 산업 단지 조성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인천의 산업사를 소개하고,

인천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일상과 생활 문화 조명

기간: 10월 8일~2020년 2월 16일

장소: 인천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인천시립박물관

☎ 032-440-6750



15 해양 도시 인천에서 열리는 미술 축제

‘2019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제(평화의 서해 서막전)’이 개막합니다.

일시: 10월 9일~12일

장소: 송도컨벤시아 1전시홀

행사 내용

\* 2019 인천국제아트페어: 인천 미술 시장 부흥을 위한

국내외 유명 작가 부스전

\* 제55회 인천미술대전: 국내 신진 작가 등용문

\* 2019 인천미술청년작가전: 청년 작가 전시 활동과

원로 작가와의 교류 지원

\* 대표 작가 초대전: 서양화 최예태, 수채화 박철교, 서예 박원규,

문인화 박종희, 중국 2017년 10대 작가 선정 기진민, 희준요

문의: 인천미술협회 ☎ 032-867-2196

16 도서관 가을 문화 행사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즐기는 문화 행사를 소개합니다.

[미추홀도서관]

2019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일시: 10월 1일~29일(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문의: 미추홀도서관 ☎ 032-440-6667

‘길 위의 인문학’ 탐방 프로그램

일시: 10월 26일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중앙시장~송현시장~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송도 센트럴파크

문의: 미추홀도서관 ☎ 032-440-6667

2019년 多북多북 인천 페스티벌

일시: 10월 12일 오전 11시~오후 5시

장소: 청라호수공원 청파나루 일대

문의: 미추홀도서관 ☎ 032-440-6667

2019 미추홀북 낭독 공연

일시: 10월 5일 오전 11시 꿈땅작은도서관, 오후 4시 석남도서관,

10월 19일 오전 11시 수봉도서관, 오후 4시 중앙도서관

문의: 미추홀도서관 ☎ 032-440-6665

[청라호수도서관]

청라호수도서관과 함께 열두 달 그림책 산책⑫

일시: 10월 19일 오후 2시~4시

문의: 청라호수도서관 ☎ 032-563-9580

[청라국제도서관]

2019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주제: 환경, 삶을 넘어서 삶이 되다

일시: 10월 16일, 23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26일 오전 9시~오후 1시 / 30일 오후 7시~9시

문의: 청라국제도서관 ☎ 032-562-1672

[영종하늘도서관]

북 스타트 부모 교육 특강

주제: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일시: 10월 26일 오후 2시~4시

문의: 영종하늘도서관 ☎ 032-746-9145



BOOK INFO

‘인천서점’이 추천하는  
인천 冊[책]



인류는 언제부터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왜 맥주 편을 ‘호프집’이라 부르게 됐을까?  
대한민국 맥주는 정말 대동강맥주보다 맛이 없을까?  
내 집에서 간단히 수제 맥주를 만들 수 있을까?



수제 맥주 바이블

지은이 전영우  
327쪽 19,800원  
퍼낸 곳 노란잠수함

열혈 맥주 애호가인 저자 전영우는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최근 앤 ‘인천투데이’에 격주로 맥주와 관련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수제 맥주 바이블’이라 명명한 이 책에는 맥주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는 맥주의 역사, 맥주의 스타일과 종류, 맥주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수제 맥주 만드는 방법 등을 두루 소개한다. 맥주 애호가га 늘고 해외와 국내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수제 맥주를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요즘에 더욱 읽어봄직한 책이다. 독일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한창이기도 할 10월을 맞아 적극 추천한다.

인천서점 :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H동 1층(인천아트플랫폼)  
☎ incheon-librairie@naver.com



## 시월의 어느 멋진 ‘인천 시민의 날’에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인천’이란 지명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때는 조선 초기다. 태조는 고려의 흔적을 지우고자 ‘경원부’란 지명을 ‘인주’로 바꾼다. 이어 태종은 15세기 초 인주를 ‘인천군’으로 개칭한다. 인천뿐 아니라 군이나 현에 주(州) 자가 들어 있는 고을은 모두 산(山) 자나 천(川) 자로 고친다. 그때가 1413년 10월 15일이었다.

‘인천 시민의 날’은 1965년 처음 제정됐다. “향토애를 높이고 인천 시민들이 다 함께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시민의 날을 정하자”는 윤갑로 당시 인천 시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개항일인 1883년 1월 1일을 기념해 1월 1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추워서 공식 행사가 어려운데다 새해맞이로 분주한 시기란 지적에 따라 실질적 개항일인 6월 1일로 정해졌다.

시민의 날이 변경된 때는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한 1981년 7월 1일이다. 이후 10년 이상 7월에 기념식을 했는데 폭염이 오거나 장마가 지기 일쑤여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결국 1993년 인천시사편찬위원회가 인천이란 지명이 탄생한 10월 15일을 제안했고, 이후 지금까지 10월에 인천 시민의 날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시민의 날 비슷한 게 있었다. 일제는 2월 9일을 ‘인천의 날’로 기념했는데 일본의 러일전쟁 승전일이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랴오둥(遼東, 요동) 반도를 차지했지만 러시아가 주도한 3국(러시아, 프랑스, 독일) 간섭으로 어쩔 수 없이 반환한다. 복수의 칼을 갈던 일본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1904년 2월 8일 뤼순(旅順, 여순) 군항을 기습 공격하는 한편, 한국에 병력을 집결해 하루 뒤인 9일 인천 앞바다에 떠 있던 러시아 함대가 자폭하도록 만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의 야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선선한 바람과 겨자 빛깔로 출렁이는 알곡들. 10월은 가을이 본격 시작되는 시기다. 바리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란 노래에 나오는 노랫말처럼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계절이 시월이고 가을이다.

이 가을, 인천특별시대 300만 시민시장들이 오는 10월 15일, 55번째 생일을 맞는다. 인천시는 그동안 크고 작은 정책을 시민과 함께 결정해 왔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인천애(애)뜰’과 같은 슬로건이나 광장 명칭 공모에서부터 예산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애썼다.

20년간 중단됐던 배다리 관통 도로 사업 재개, 10년간 멈춰 있던 월미바다열차 개통 등 오랜 난제들을 해결한 것도 ‘300만 시민이 모두 시장’이란 시정부의 진정성과 철학이 있기에 가능한 결실이었다. 그런가 하면 ‘인천e음카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소상공인과 시민 간 소통을 크게 확장시키며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쓰레기 매립 문제와 같은 주요 현안을 시민과 논의하며 함께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시가 강한 의지로 추진하는 ‘2030 미래 이음 비전’은 시민과 시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인천을 건설하자는 ‘협치와 소통’의 결정체다.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이 살리고 더 튼튼하게 잇자’는 인천 시민들의 미래 행복 지도가 바로 2030 미래 이음 비전이다.

앞으로 10년 뒤 인천 시민들은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다. 이번 인천 시민의 날엔 새 단장한 시청 앞 광장 ‘인천애(애)뜰’에서 가을 햇살을 받아도 좋을 일이다. 지그시 눈을 감고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며….

##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한쪽 벽에 크게 걸린 가족사진이 그리 부럽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 흘러 형편은 조금 풀렸을지 몰라도, 온 가족 둘러앉아 얼굴 보는 일은 더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굿모닝인천>이 동네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집안 행복이 흐르는 자리에, 소중한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아버지도 함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달 전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고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가족사진 한 장 제대로 남기지 못한 것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하지만 이제 울지 않으려 합니다. 더 환하게 웃으려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지켜주실 테니까요. “아빠, 아무 걱정 마세요. 사진 속 밝은 미소처럼 우리 가족 푹푹 뭉쳐 씩씩하게 살아갈게요.” 이토록 어여쁜 우리 모습, 아버지 계신 곳에 넣어드릴 수 있어 한없이 기쁩니다.

홍혜림(32) 독자님 가족

이달의 사진은 ‘인생사진관’에서 찍어주셨습니다.

김성욱(50) 사진사는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로 이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큰 욕심 없이 가게를 꾸려가고, 사진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위치 계양구 경명대로 1077 문의 032-515-5182

※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개와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 보내주세요.

신청 : <굿모닝인천>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incheon.go.kr) 독자마당(성명/연락처/주소 필수)

